

남도에서 새 인생 新 전남인

(3) 함평 석두마을 7년차 손성혜 씨

“어떻게 살 것인가” 삶의 의미 찾기 위해 귀어 결심했죠”

바닷마을에서 살게 되면 영화 '건축학개론'에 나오는 제주도 '서연의 집' 같은 집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.

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수평선을 오롯이 마주할 수 있는 그곳의 전망을 동경했기 때문이다.

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석두마을에서 만난 손성혜(40)씨의 집은 내 이상향과 닮았다. 창가에는 사시 사철 푸른 바다와 갯벌이 담겨있고, 목재 바닥이 인상적인 현관은 언제나 손님을 반길 준비가 돼있다.

1층 집을 둘러싼 150평(495㎡) 부지는 곳곳이 알차다. 뒤쪽 뒷밭에는 배추와 상추, 옥수수, 고추, 오이, 감자 등 제철 채소가 식탁을 풍성하게 하고, 포도가 자라는 비닐 온실은 아이들이 좋은 생태체험장이 된다.

올해는 손씨가 이곳으로 귀어난 지 7년째 되는 해다. 석두마을은 그가 타고 자란 고향이자 친정이다. 광주에서 가정을 꾸려온 손씨는 둘째를 낳은 직후인 지난 2015년 귀어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다. 오랜 타지생활을 해온 그에게 함평은 고향이라는 것 외에는 어떤 접점도 없었다. 손씨는 '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' 보다 '어떻게 살 것인가'라는 질문에 해답을 찾자 귀어를 결심했다.

"목포에서 대학을 나오고 서울과 광주에서 보육교사로 일했던 저는 피로가 쌓일 대로 쌓였어요. 보육교사 일은 더는 하고 싶지 않을 정도였죠. 당시 제게는 세 살배기 아이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존재였어요. 그들이 아토피를 심하게 앓아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귀어를 택했어요. 돌아보면 가장 잘 선택한 것 같아요."

아들과 온 가족을 괴롭혀온 아토피는 전원주택으로 옮기면서 씻은 듯 사라졌다. 내년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둘째 딸의 건강은 말할 것도 없다.

함평 석두마을은 다른 해안 마을보다 도로 사정

이 좋아 광주의 어느 시가지든 1시간 안팎으로 달 수 있다. 덕분에 손씨 남편은 광주 직장생활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었다. 마을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함평초등학교가 있어 아이들 교육 걱정도 덜었다.

"도시를 떠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걱정 중 하나가 교육 문제인데 그건 오해예요. 바다와 갯벌에서 뛰놀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 외에도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이 수도룩하죠. 초등 3학년인 아들은 방과 후 컴퓨터와 축구를 무료로 배우고 있어요. 무안 등지에서 역점사업으로 들고 있는 항공 교육 문을 두드리면 아들의 조종사 꿈에 한발짝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. 둘째 어린이집 비용은 5만원이 채 들지 않고 있어요. 아이들은 영어와 드럼, 판소리, 검도 등을 마음껏 체험하고 있죠. 덕분에 저도 아이들과 검도를 배우며 '취미 부자'로 거듭나고 있습니다."

손씨가 귀어를 하며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'내 집 마련'이었다. 손씨는 친정과 가까운 곳에 방 3개짜리 1층 집을 지었다. 주변 자연과의 조화, 구조에서부터 마감재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신경을 쓰다 보니 완공하는 데 2년이 걸렸다. 30대 초반 당시 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손씨 부부에게 지자체 융자 지원정책은 큰 힘이 됐다.

손씨는 함평군 '귀농 주택 신축' 융자지원 제도를 활용해 6000만원을 지원받으며 공사비용 1억원을 마련했다.

전남도와 함평군은 귀농·귀어인에게 다양한 융자를 지원하고 있는데, 그 중 '귀농 주택구입·신축'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최고 7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.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하 세대주이며, 귀농·귀어한 지 5년이 넘지 않으면 된다.

시중보다 낮은 2% 대출금리에 5년 거치 10년 상



함평 석두마을 귀어 7년차 손성혜(40)씨가 일군 뒷밭에는 배추와 상추, 감자 등 제철 채소와 함께 전원생활에 대한 꿈도 영글어 간다. /함평=최현배 기자 choi@kwangju.co.kr

환 조건이라 젊은 귀어인 사이에서 인기다. 수산업에 종사한다면 최고 5000만원까지 저리에 빌릴 수 있는 '수산업 창업 및 주택구입' 지원정책도 관심 가질만 하다.

손씨는 틈날 때마다 어촌계 활동과 마을학교 봉사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써하지 않았다.

그는 전남도교육청이 진행한 총 80시간 교육과정 이수해 '문해교육 지도사 2급' 자격증을 따다. 자격증을 취득한 뒤 보육교사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지역 아동들의 학습 능력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. 또 물더리 해수욕장이 있는 석두마을의 어촌계가 주관하는 바지락 캐기나 장어잡기 등 맨손어업 체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. 공공근로 사업의 하나인 '희망일자리'에 참여하기도 했고,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관광객에게 판매하며 소득을 올렸다.

손씨에게는 오래 전부터 품어온 인생 2막의 꿈이 있다. 그는 2년 전 한국커피협회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낸 뒤 자신만의 카페를 차릴 준비를 하고 있다.

손씨는 예비 귀어인들에게 '가족 간의 소통'과 '경험의 중요성'을 새겨두라고 전했다.

"저는 이 마을 출신이라 그런대로 적응할 수 있었지만 도시에서 줄곧 생활해 온 그의 남편은 해안가 특유의 역센 말투에 어려움을 겪었어요. 그때마다 이웃들이 먼저 배려와 친절을 베풀어 저희 가족에 힘을 실어줬죠. 귀어에 100% 자신이 없는 분들은 3박 4일짜리 '전남 어촌 탐구생활'이나 '도시민 전남 어민되다(한 달)' 등으로 어촌 맛보기를 해보길 권합니다."

/함평=백희준 기자 bhj@kwangju.co.kr



손씨 가족에게 석두마을 앞바다는 365일 놀이터다. 함평 유일의 해상교통로와 인공해수 풀장, 갯벌 탐방로 등이 있다. <손성혜씨 제공>

전남 귀어인 3명 중 1명 여성 40% 수도권서 이전...매년 증가

전남 어촌에 등지를 둔 귀어인 3명 중 1명 꼴은 여성이며, 5명 중 2명은 수도권에서 온 것으로 나타났다.

전남 귀어인의 70%는 전업어부였는데, 40대 귀어인의 겸업 비중이 가장 높았다.

이 같은 내용은 통계청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'귀어인 통계' 자료에 담겼다. 지난 2019년 기준 전남 귀어인은 372명으로, 1년 전보다 10.1%(34명) 증가했다.

전남 귀어인은 300명(2017년)→338명(2018년)→372명(2019년) 등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. 5년 전인 2014년(287명)에 비해서는 29.6%(85명) 늘었다.

전남 귀어인 372명은 가족 115명과 동반해 귀어 가구원수는 487명으로 집계됐다.

평균 귀어가구원 수는 지난 2019년 1.36명으로 나타났는데, 이는 전년(1.39명)보다 소폭 줄어든 수치다. 2019년 전체 귀어가구 358가구 가운데 73.2%에 달하는 262가구가 '단일가구'로, 여전히 '나 홀로 귀어'가 주를 이뤘다.

전남 귀어인을 성별로 따져보면 남성과 여성이 7대 3 비중으로 나뉜다. 지난 2019년 귀어인 372명 가운데 70%에 달하는 261명이 남성이고, 나머지 30%는 여성이었다.

여성 귀어인 비중은 지난 2014년 34.8%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15년 29.1%, 2016년 24.0%, 2017년 28.7%, 2018년 27.2%로 나타내며 '30대 벽'을 넘지 못하고 있다.

귀어인 372명 가운데 전업어부는 257명으로, 69.1% 비중을 차지했다. 나머지 3명 중 1명 꼴로는 겸업을 한다는 뜻인데,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겸업 비율이 38.3%로 상대적으로 높았다.

40대에 이어서는 겸업 비율이 ▲0-39세 31.9% ▲60대 31.0% ▲50대 27.3% 등 순이었다.

귀어인의 10.8%는 양식업업을 택했고, 나머지 89.2%는 해수면어로 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지난 2019년 전남 어촌에 인생 2막을 시작한 귀어인 5명 중 2명 꼴(40.1%)로는 수도권 지역에서 왔다. 전남도내에서 귀어를 한 비중이 28.3%로 였고, 광주에서 전남 어촌으로 온 비중이 18.0%로 뒤를 이었다.

/백희준 기자 bhj@kwangju.co.kr



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기 바라는 마음에 집을 지으면서 넓은 나무 문간을 만들었다. 도시에서 아이들이 앓던 아토피는 씻은 듯 나타났다. <손성혜씨 제공>

SINCE 1982

각국 보청기 전문 A/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

대한민국소재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[5년 연속] 수상

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혁신 시상식 [혁신기술상] 수상

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(BIG Innovation Award) [혁신상품부문] 수상

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.

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.
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.
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.

국제보청기

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) 227-9940 062) 227-9970
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) 765-9940
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) 752-9940